

교회 목표

신랄한 예배
천국인관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전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HŒN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 제3차 청지기 훈련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30분, 본당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성경의 변함없는 단호한 선언에 따라(롬 12:2), 충현의 모든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다시 복음으로 세움을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청지기 훈련은 예수께 속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일꾼의 바른 정신과 태도에 무장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청지기 훈련에는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권장 등 모든 제직원들, 그리고 찬양대원·교회학교 교사·각 전도의 회원·청년·대학부 일원 및 회원·교회직원·차량관리부·안내위원·헌금위원 등 모든 일꾼들, 또한 충현의 모든 성도까지 총집결하게 된다.

이번 청지기훈련의 강사는 위임목사이며, 수요일 저녁에는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주제에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목요일 저녁에는 “이 땅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리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삶을 창조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변화된 삶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수없이 쏟아지는 삶에 대한 정보와 가치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오직 한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중심하게 한다면 멸망의 날에 노아를 부르셨고, 우상의 땅에서는 아브라함을 일으키셨으며,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에는 룯과 사사들을 부르셨다. 악한 아합왕의 시대에는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칠천 명의 용사들을 남겨 놓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굳센 의지를 누가 막으랴! 마라고 오 마라기는 이번 청지기 훈련기간 동안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도록 하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영혼에 찾아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제4차 학습세례식

오전 찬양 예배시(오후 5시), 본당에서, 해당자들은 4시30분까지 출석

다음주일 1부에서 5부 예배시 제5차 성찬식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느님이 하느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 ~ 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깊은 사막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영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고백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례의 귀중함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

오늘 찬양예배시간(오후 5시)에는 학습세례식이 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습세례는 모두 73명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데, 학습은 24명(남8, 여16), 세례는 19명(남8, 여11), 유아세례는 15명(남7, 여8), 입교는 13명(남7, 여6), 그리고 개종은 2명(남2)이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취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받은 은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임이 되는 거룩함으로 초성되는 자들이다(골 3:27). 그러므로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세례가 아닌 사람의 세례로 대신하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야 하겠다.

또한 다음주일(9월 2일)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제5차 성찬식이 주일 15부 예배시에 행해진다. 성찬에 참여하게 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배우신 성찬을 위해 기도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2001년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9월 9일(주일)에서 12월 16일(주일)까지

교육훈련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주간성경공부’와 ‘교사 양성부’, ‘직분자 양육부’와 ‘찬양대원 양성부’, ‘평신도 선교훈련’과 ‘전도대원 훈련’ 그리고 ‘수화반’과 ‘경로대학’ 등이 9월 9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개강한다. ‘찬양대원 양성부’는 매주 화요일에 실시되고, ‘직분자 양성반’과 ‘전도대 훈련’은 수요일에 실시된다. 그리고 ‘주간성경공부’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실시되며, ‘평신도 선교훈련’은 토요일에 실시된다. 또한 ‘교사 양성부’와 ‘수화반’은 매주일에 진행된다. 하반기에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충현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를 위한 제안(2)48주년을 맞이하여 9월 9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시간에

성경은 자녀들을 향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하고 명령한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순전히 부모들의 역할 때문이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역할 때문이라는 말이다. 사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명한 통로가 될 때 순종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만일 믿음에서 멀리 곤경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권위에 입각한 강요이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모든 자신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어야 하겠다. 주께서 맡기신 자녀들과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후 분반성경공부	분반 장소
2부 09:00~10:00	본당	10:20~10:50	각 부서
3부 11:00~12:00	본당	12:20~12:50	각 부서

신학 질문

죄의 본질적 특성

많은 교육학자들은 루소의 견해를 따라 인간이 본래적으로 선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인간은 악에 물들었다고 한다. 그것도 일부만이 아니라 철저치, 전부가 타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의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로 본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특성을 살펴보자.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죄의 윤리적 인격을 말하고 있다. 죄라는 것이 불시에 인간에게 덮쳐진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죄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죄책’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자유로웠지만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창 3:1-6, 18-32) 그 자만과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람은 죄자니면 선, 둘 중의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어떤 중립도 말하지 않는다.(마 10:32, 33, 36; 11:23) 인간은 날 때부터 그 본성상 죄로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렘 17:1, 마 7:15-20, 롬 8:5-8) 그 죄의 부패함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라고 말한다.(마 15:19, 히 3:12) 우리가 전적 부패하고 할 때 그 부패가 단지 외적인, 물리적인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퍼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롬 7:7, 갈 5:17, 24)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타락한 인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고풍이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목사, 고등부 지도)

Lord's Supper

(1 Corinthians 11:20~34)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 Lord's Supper is a sacred worship service. Every Christian should participate in this divine ceremony because it is our reminder of Jesus' suffering on the cross. As we come together today, let us keep in mind the significant aspects of this observance so that we can wholeheartedly worship our Lord and Savior in spirit and in truth.

Jesus wants us to share this meal in real fellowship. He wants us to be unified in our coming together, “So then, my brethren, when you come together to eat, wait for one another” (v. 33). As we receive our food, we should pause until everyone is ready. Then as one, we should eat and drink. This type of dedication, consecration, and sharing in His suffering is what Jesus wants. Our oneness brings glory to His name. It is a Communion of His people.

The Lord's Supper came from Jesus Christ. Paul did not make it, Peter did not make it, nor any of the other disciples. Paul specifically mention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v. 23). Jesus is the author and originator of this holy meal. The Bible tells us,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meal is a divine revelation from the Lord, not man.

The Lord commands that we “do this”, eat the bread and drink the cup in remembrance of Him. These are His order. As such, if you are Christian you must obey. If you don't follow Jesus' imperative instructions, how can you be His disciple? Why do you call Him Lord, Lord, and do not do what He says? (see Lk. 6:46). If you say Jesus is your Savior, then you should be quite serious about this Lord's Supper. It's not right to think this table is optional or for your discretion. This meal is a commandment for all

Christians.

Jesus' death is remembered at this gathering. The Lord's Supper shows us His death. It reminds us of the throne of God and the suffering of the cross for our sins. The Son of God left His glorious place in heaven to come to this earth for sinners. He gave us everything. He died on a cross in submission to His Father's will. His sacrificial death gives us victory over death. His absolute love bring us in relationship with God. His suffering brought eternal life to our souls. As such, we must remember Him with reverence. We must appreciate His suffering and be humbly thankful for His death.

Whenever we partake in the Lord's Supper we have to proclaim His death. It's not like we take it once and, thereafter, not have to declare this truth. The Bible tells 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It's our obligation to remember Christ's death. It's our duty to proclaim His death and coming again! This is our hope. This is the Gospel.

Every time we come to His Table we must announce the Good News of all time!

The Lord's Table is so serious, His death and sacrifice so vital, that prior to our eating and drinking we have to prepare our hearts. We need to search ourselves,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vv. 28-29). Before we partake of this valuable meal, we need to confess our sins so that our hearts are sincere. We need to be pure in our worship and worthy in our manners.

If you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Savior, you should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The Lord's Tab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actices within His church. It is a time of sacred worship. The Lord's Supper is a commandment. It is our duty to participate with a clean heart. Let's join now with sincerity in our hearts to His Table. Amen.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 (고전 11:20~34)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고난을 상기하는 시간

주의 만찬은 신성한 예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성한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곳에 모인 우리는 이 의식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구주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 교제의 시간

예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교제 안에서 이 만찬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고전 11:33). 우리가 음식을 받을 때,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가 되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이러한 봉헌과 헌신과 나눔이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신적 계시의 시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제자들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23절). 예수께서는 이 거룩한 식탁의 근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3-25절). 이 만찬이 인간이 아닌 주께로부터 온 신적 계시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명령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즉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예식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의 단호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의 제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어,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눅 6:46 참고)?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 주의 만찬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 식탁을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만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

이 모임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찬의 식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위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치르신 속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줍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정죄함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당한 고난과 그의 죽음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시간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참석하고 이 진리에 대해 전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증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재림을 전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매순간 우리는 그의 식탁으로 나아와야 하고, 언제나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시간

주의 만찬은 매우 진지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속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먹고 마시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성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28-29절). 우리는 이 소중한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각자의 죄를 고백함으로 순전하고 진실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를 향한 실천의 시간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주의 만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아멘. ■

주님의 기쁨되는 가정되게 하소서

방 준 영 (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8월초 교구 농촌전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가지 충격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어린이들 가운데 70-80%가 결혼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무너져가는 가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정들이 있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수록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비취길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되었던 노아 시대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사 6:13). 세상 가운데 담겨진 거룩한 씨, 곧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기쁨되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기대를 이루어감에 도움이 되고자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신혼가정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혼가정부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위하여 ‘결혼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함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결혼 한 신혼 가정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결혼 10년이 넘는 고창 부부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우길 원하며 신혼가정부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충현의 귀한 예비 부부들, 신혼 가정들이 신혼가정부를 통하여 신앙의 귀한 유익과 풍성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담겨진 거룩한 씨, 곧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며, 주님의 기쁨과 영광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이 쌍 대 (집사, 신혼가정부 회원)

나와 아내는 34살 동갑내기 늦

은 나이에 우리 교회의 단기경신도선교훈련과정(LMTC)중에 만나 2년 전 가정을 이루었다. 고창 친구, 학교 동기, 군대 동기 중에 내가 가장 늦게 막자를 탄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오히려 나에겐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나 방법이 다르듯 나에게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만나게 하였으며 또한 나를 다듬어 가셨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의 소개로 충현교회로 인도받아 처음으로 믿음생활을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방식과 목표가 점점 바뀌어 갔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한 가지 가장 뿌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이 참으로 귀함을 깨달았다. 대가족(부모님/7남매)이었던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내 누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를 나의 가정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꼭 신앙의 유산을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믿음의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 27:17). 이 말씀을 묵상하며 친구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부간의 얼굴에 책임이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얼굴에도 서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나아가야 할 얼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며, 여호와 하나님께 할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자신있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신혼가정부와의 만남 그리고 비전

김 정 희 (집사, 신혼가정부 교사)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며 소중한 만남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일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허락하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신혼가정부와의 만남이 떠오른다.

신혼가정부. 이름만 불리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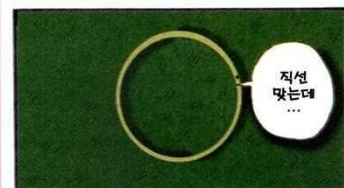
우리 부부에는 주로 신혼 가정들이 모여 있지만, 예비 부부들도 있고, 하나님을 원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싶어 직접 찾아오신 결혼 10년이 넘는 고창 부부도 있다. 이들의 모습은 다양하나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이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고,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섬기기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도 마도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때 기쁨이 충만하다. 또 분반공부를 통하여 가정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নিয়ে놓고 또래 부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며, 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만평

글·그림 : 김범현



당신의 시야를,
당신의 결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귀한 은혜를 맛보곤 한다.

때때로 삶 속에서 무뎠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신혼 부부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갈등에 빠져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갈등을 이겨나가며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사랑과 용서로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었어요' 하며 예수님과 만남을 기뻐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다.

신혼가정부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을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가진 가정들로 훈련받고 나아갔으면 한다. 그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이 중년의 때엔 중년 가정들을 통하여, 노년의 때엔 노년의 가정들을 통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리라 믿는다.

핀뜻한 이야기

새와 벌레의 먹이는 싫는데...

서 화 자 (전사, 8교구)



얼마전 가까운 장로님의 포도농장에 갔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장로님께서는 포도 알이 고르고 보기에도 잘 생긴 것만을 골라 종이봉투 속에 조심스레 넣어 상자를 만들곤 하셨다. 며칠이 지나면 남은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 싸지만,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한 포도들은 결국 까마귀나 벌, 새들의 먹이가 된다고 하셨다.

일을 하는 내내 생각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라는 말씀이 나의 맘을 혼들어 기도하게 하셨다.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선택받은 포도처럼 나 역시 주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보살핌 속에 잘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분 뜻대로 살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다. 주님을 바르게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결심도 생겼다.

포도밭에서의 더운 하루였지만, 포도를 따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짐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기도원에서 되돌아본 지난 시간

이 정 희 (장년 1부)

여름 휴가를 맞아 기도원에서 와서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일들을 되돌아 봅니다.

2001년 1월 7일 주일 낮 12시 20분.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장년 1부에 처음 문을 두드린 날입니다. 교육관 407호에 자리하고 있는 장년 1부 교실에는 총원의 40대 남녀 성도님들이 모여 성경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아직 와 보지 못한 신분이나 한 두번 다녀가신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만 와 보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고요와 보심으로. 적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서먹서먹하여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출석을 할까 말까 갈등을 했답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더 가보고 결정하자!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장년 1부에 이르기까지 하고있고 지금은 성경공부 시간이 기다려진답니다.

목사님의 저도로 열심히 성경공부 하면서 일주일 동안 두 구절의 성경 암송이 제일상 생활과 신앙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지하철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름 수련회 기간 중 “참된 행복”이란 주제로 이전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성령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술머리 때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강도하게 했던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주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전강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순간 순간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을 인식하고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의 복을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주일 찬송

28장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송은 미국 음악인인 아론 제인이 1805년에 작곡한 황금언덕(GOLDEN HILL)의 곡에 맞추어 어느 선교사가 성만찬 찬송으로 작사한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벧전 1:19)라고 설명한다. 그러기에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마 26:28). -1절-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제단에 드렸으나 신약 시대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에서 피흘림으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다. -2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워주시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는 권면이다. -3절-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함당치 않게 받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고전 11:27). -4절-

늘 사모하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기가 뵈겠다는 것이며, 사랑하는 주님을 반기기 보아오면 그가 분부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결실이 있어야 하리라는 내용이다 -5, 6절-

사용분류 성전례와 찬을 돌리는 동안 (찬양위원회)

[인물 중심의 교회사 순례] 베네딕트

반석같은 평안

베네딕트가 태어난 480년경은 종말적인 시대였다. 불안정한 사회 그리고 타락한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정자들은 백성을 속이고 착취했으며 백성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것은 사치요, 음란이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말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러한 시대에 베네딕트는 혼란에 빠진 세상에 질서있는 생을 가르치려 온 선생이었다. 그는 많은 다른 교부들처럼 짧은 인생을 통해 신자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했다. 광야의 한 수도사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모든 수도사들의 선생으로 알려지게 된 베네딕트는 미친 운전자로서 그의 삶을 시작했으나 마침 때는 왕처럼 수천 명 위에 군림하는 권세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생 전체를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신념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한 한 방법이 마음과 육체의 훈련이었다. 그는 수도하는 이들이 반석처럼의 연한기를 원했다.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러한 그가 발견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는 것이었다.

“사회가 불안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더라도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안된다. 이런 때 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은 신자 자신을 훈련시켜 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반석처럼의 연한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세상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한번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쳐야 한다”

이러한 삶을 위한 철저한 훈련, 이것이 베네딕트의 이상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훈련에 몰두하였다. 오늘의 우리는 이러한 베네딕트의 이상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질 수 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김기홍의 천국의 기쁨에서)

부활의 기쁨, 재림의 소망

황 선 혜 (장사, 6교구)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

죄악과 주주의 절망에 허덕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망과 갈등으로 가득하고 미움의 세막에 놓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죄악을 청산하고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심지기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미움이 기쁨과 사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안개가 우리 곁에 둘러 씌웁니다.

기쁨의 안개는 우리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의와 화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예수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큰 소망입니다.

가슴 설레었던 여름성경학교

조수빈 (초등부 4과 1반)

성경 학교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새한 비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가는 마음을 너무도 설레었다. 교회에 도착

하여 찬양연습을 한 뒤에 예배를 드렸다. 김용식 전도사님은 '나누는 삶'에 대해 설교를 하셨다. 분반공부 시간엔 게임은 사람과 도둑은 회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돌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배웠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 길 가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은 아팠지만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인형극도 보고 과별 성극도 했다. 나는 인형극에서 나온 맹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정말 기뻐했다. 그리고 과별 성극은 재미있었는데 그 중 5과가 제일 잘했다.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는데 전도사님의 말씀과 기도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 기뻐했다. 그리고 세족식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음날은 새벽예배를 시작으로 미니 올림픽이 열렸다. 맘을 뻗힐 줄리면서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폐회 예배를 끝으로 성경학교는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성경학교

원나현 (유년부 2과 2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월 16일이 왔다. 아침에 눈을 뜨니 기분이 좋았다. 학교에 가서 친구 유영이를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즐거웠다. 오우가 되었다. '유영이, 여름성경학교 가자' 하나가 안 된다고 하였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다. 할아버님께서 유영이 오빠가 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셨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하복할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다. 엄마·아빠·동생과 떨어져서 교회에서 하루 잔다고 생각하면 슬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즐거웠다. 친구들과 선생님께서도 오셨다. 우리들은 찬양도 부르고 게임도 했다. 그 중에 미니 올림픽을 할 때에 언니·오빠들과 줄다리기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예수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친구가 여름성경학교에 못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도하는 나현이가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

박경배 (소년부 교사)

2등은 필요하고 1등만 존재한다고 하는 세상은 점점 더 극도로 달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것이 요즘 세상풍조입니다. 반면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시간에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런 아이들의 주미에 맞게 되도록 짧고 재미있게 설교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말씀보다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예배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아이들도 이제는 기적 연구해 내 새로운 학습방법조차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일 주일을 통틀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학원으로 내몰고 있으며,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 기호에 맞춰 신앙교육을 시키다보니, 말씀의 권위는 찾아볼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그냥 목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이들은 왜 교회에 올까? 예수님을 만나려 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도 유령의 교회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와 전반적으로 침체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IMF이전에는 물질주의 이단인 극성을 부렸습다. 하나님 말씀에 떠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리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권력과 다르고, 정당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열매

에스겔(Ezekiel)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에스겔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성전'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므로 그 모든 백성 역시 약속의 땅을 잃고 떠나게 된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멀리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세우실 '영원한 성전'을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시지는 '배후살상 성전' 즉,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거룩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요 2:21). 또한 정치 도래하게 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려(에스겔의 메시지가 된(에스겔 2:12)).

또 에스겔을 읽으실 때에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함이니'라는 의미를 유념 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 자주 등장하는 이 문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새로운 제2의 출애굽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문장입니다. 즉, 에스겔은 파괴된 성전과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듯이, 또 다시 깨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출애굽 역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 함'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면, 이스라엘이 포로귀환을 통하여 새롭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사건에 대한 예언(에스겔 2:68).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빌립보의 대화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게 대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요한 14:7-10).

또한 에스겔을 읽으실 때에는 그 내용을 57지로 분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4장-24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25장-32장은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국에 대한 심판, 33장-39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40장-48장까지는 천 년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구분하고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묘사가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 등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분류한 것들의 주된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읽음으로써 에스겔서가 말하려고 하는 목적을 읽을 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현 목사·영일교회 지도)

너는 그리스도의 반지니



가장 확실히 사랑하는 방법

언뜻 쓰러가는 한순간의 잊혀지지는 감동을 경험한다.

모 방송국의 '침향나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며 가슴 뭉클한 사연에 감동을 받은 한다.

무로공식을 위해 자기들은 김치와 고추장에 밥을 먹으면서도 급식자들을 위해서는 정종과 영양 많은 식사를 수반해 제공하는 아주머니도 있었고, 유학생과 고국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며 폐품을 모아 팔아서 학비를 주시는 80이 넘는식 조교 할아버지도 있었다.

대부분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수중에 조금의 돈이라도 있으면 자기 자신감을 두는 곳에 그 돈을 쓰곤 한다. 이 분들은 말한 일서는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착한 행위를 욕심만을 위한 것이려면 배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 주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 주었다. 네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였고, 맹인 자의 눈을 고쳐 주셨으며,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음식과 양식을 베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다. 주님께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내가 나의 모든 시간과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쓴다고 하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선행이 그들에게 영원한 유익이 있을까? 그들이 나중에 죽어서 또 나에게 뭘 묻는 돈과 양식보다 예수님을 알려 주지 않았느냐도 원망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까?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뿐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사명의 표현이다. 우리 누구를 확실히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영원히 이르기까지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려 주는 일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요리가자)

교회 소식 / 새가득

알림

정학현금 안내
오늘 1부~5부 예배시 있습니다. 기도하
고 정학현금 준비하시바랍니다.

모임

1. 장로 필요세비기도회
일시: 27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화요일세비기도회
일시: 28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천양위원회 총무회의
일시: 오늘 천양예배 후
장소: 천양위원회실
4. 감사위원 및 실행위원 연석회의
일시: 오늘 11월(토) 18:00
장소: 교육관 208호
5. 남남전도부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광복동
6. 권사 자회 월례회
일시: 29일(수)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7. 2교구 협의회
일시: 28일(화) 18:30
장소: 광복동
8. 2교구 연례예배
일시: 31일(금) 10:30
장소: 배다니홀

4. 미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28일(화) 10:30
장소: 신촌가정부실
5. 미리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28일(화) 10:30
장소: 배방고을(☎38-9500)
6. 미리아 14지회 월례회
일시: 28일(화) 10:00
장소: 전원촌 집사택
7. 미리아 16지회 월례회
일시: 27일(월) 10:30
장소: 강수현 집사택(☎31-421-0586)

별세

1. 김기환 타교장로 (김지철 집사의 부친,
김장자 집사의 사부, 2교구 상장(4구역)
/ 14일 별세, 16일 장례
2. 김준자 권사 (오재동 성도의 부인, 13
교구 집사(3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
례
3. 최관복 성도 (김장자 씨의 남편, 13교
구 화곡3구역) / 15일 별세, 18일 장례
4. 신봉호 집사 (김주승 성도의 모친, 김
봉애 집사의 시모, 2교구 이화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5. 장승진 성도 (이순희 권사의 남편, 12
교구 문촌1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
례
6. 석덕자 권장 (김정호 집사의 모친, 김
남익 성도의 모친, 12교구 소만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동서노회 제60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 고사 신청(간사로서 목사 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② 장로사신회 및 장로회 ③ 전도사 고사 신청
 - ④ 목사 후보생 고사 신청(신학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임시 지원자)
 - ⑤ 목회 계속 주선 위원(총신대학 및 총신신학원 재학생)
- 제출마감: 2001년 9월 8일(토)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과(☎ 552-8200 #604)

2001학년도 총련전도대 2학기 학생 모집

1. 2학기: 9.6~11.22(2주)
2. 교육과정: 연영 안에서 이성인 자로서
가. 본교의 성도 중 자라나 나. 타교회 성도 중 자라나
다. 지역사회의 거주하는 주민 중 자라나
3. 수업시간
주 1의 4시간 수업: 매주 목요일(중학교는 교회에서 제공)
4. 등록비: 매학기 1인당 20,000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장(교육국에 비치) 나. 추천문(종교본 1통(1학기 등록자는 제외))
다. 반명함판 사진 1장(학기 등록자는 제외)
6. 서류 제출기간: 2001. 8.12~9.6
7. 제출처: 교육국, 경로대 사무실(교육관 208호)

사무국 직원 모집

1. 근무직 및 자력 식당근로직 : 50세 이하의 여자 세계교인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사진첨착) ② 자기소개서
 - ③ 타 교인인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3. 기간: 8월 31일까지
4. 서류 제출처 및 문의: 총련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남남전도회

1. 베드로 1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7호
2. 에사다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복지관 지하1층
3. 미리아 6지회 월례회
일시: 28일(화) 11:00
장소: 영아부실

예배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어린이들만 예배) (연령: 유아~초등학생 예배)	본 당
주 일 예 배	V 오후 3:00 (대학가: 드림 예배)	본 당
	VI 오후 5:00	본 당
수 일 예 배	1:00~11:00 II 오후 7:30	본 당
새 가 득 회	오전 7:30	본 당
세 배 기도 회	오전 5:00	본 당



군전도회 특강

강사: 송길환 목사
일시: 31일(금) 18:00
장소: 배다니홀

안수집사 부부 기도회

일시: 29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석 이종대 정현민 김동환 차병준
 - 교구장회 2교구 12구 7지회 1교구 1교구
- 김병태 서정진 정재석 이준경 박민기
- 15교구 2교구 3교구 5교구 4교구
- 역삼기 류병희 노경록 이종철 김영환
- 10교구 대학부 17교구 11교구 2교구
- 안석구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윤진
- 12교구 16교구 14교구 6교구 5교구
- 안정덕 방영준 나광명 정진호 김용덕
- 15교구 4교구 6교구 7교구
- 이성호 고평환 신성식
- 14교구

■ 천양감독 강일규

■ 강도사 김영기 (소부)

- 어전도사
 - 정현민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 15교구 4교구 12교구 5교구 1교구
- 김우성 한영준 김민식 홍순애 이우주
-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 김말자 안태순 최희순 박병자 김정연
-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 조옥자 장덕철 김경진 장재구 최문실
- 2교부 10교부 대학부 청년부 15교구

■ 교정전도사 박영덕

- 선교사
 - 정희호 권영일 최은아 권요섭
 - (이로가) (이로가) (이로가) (이로가)
 - 이소영 추은희
 - (소부) (이로가)
 -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 협력선교사
 - 최요섭 (이로가) 정기일 (이로가)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천양예배 (안수집사)		수요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	II
9	2	한송규	엄필성	최무길	김학기	이형중	이부성	신일순	김정희	김정희
	9	최기홍	이 훈	김재명	전용호	노정환	김희재	고규자	고명진	고명진
	16	안동현	오진국	김구형	최명환	이계인	신상수	이영진	문경숙	문경숙
	23	박찬철	배종식	김영달	이성호	조호환	유상태	조복연	송정배	송정배
	30	박종규	황민기	박덕양	이태식	정재두	정재모	김우진	오화자	오화자

새 · 가 · 족 · 을 · 함 · 영 · 함 · 나 · 다

번호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 명	교 구	소속부서	인도자
700	김주미	4		윤선화(1)	706	변정윤	19	청년1부	김정일(5)
701	정옥순	1	청년1부	김민정(1)	707	서준석	19	청년2부	
702	차태현	19	청년1	박윤석(6)	708	이송규	19	청년1부	
703	사송옥	8	청년2부		709	사상심	5	예스터	
704	최영선	8	루디아	김순복(1)	710	이하복	1	고등부	
705	최정란	19	청년2부	이복교(2)					

※ 총련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득 등록증 오시기 바랍니다.